

선군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할지리

불패의 군력은 최후승리를 선언한다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오늘날의 첨예하고 준엄한 정세속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확고하게 실증되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인민문제》를 무력건설의 명분으로 삼고 우리 제도를 말살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속삭임과 침략과 전쟁을 떠나 한시도 연명할수 없는 제국주의 생리와 본성이 날방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의 역사적인 전전회의에서 적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너트리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장기화될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하는 것이 미제의 목적이니 라고 한 우리 당의 결론은 절대나 엄정한 것이다.

군력을 다지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이며 막강한 군력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는 점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입니다.》

미국이 조작한 유엔의 대조선《인권결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성하게 격노시켰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를 모독하고 침해한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몹서리치는 집요한 타락인간을 적들은 알게 될것이고 세인은 목격하게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총대가 강하지 못했단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미제에게 짓밟혀왔다. 그러나 우리도 힘이 약했다면 이미 전에 미국에 먹히었을것이다.

제국주의의 강권이 살판치는 행성에서 힘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고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다고 해도 피고색에 물려 한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것이 역사가 남

긴 피의 교훈이다.

인류가 우리 공화국을 우러러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수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조선을 부러워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훌륭하고 우리의 위업도 정당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강한 군력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고 그 어떤 정당한 위업도 군력의 담보가 없는 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어제도 오늘도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꽃잎이 줄기차게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에서 세계가 경탄속에 찾아보는것은 다름아닌 불패의 군력이다.

세계를 둘러보고 역사를 더듬어보아도 우리 나라처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온 나라가 없다.

우리 인민처럼 최악의 역경과 도전들을 파감히 뚫고 백색의 한길로 걸어온 인민도 없다.

우리 조국과 혁명이 거둔 역사적승리의 중요한 비결은 불패의 군력에 있다.

우리 제도를 수호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군력!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군력강화의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들려켜보게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전회의!

50여년전에 진행된 이 뜻깊은 회의에 깃든 사연은 지금도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린다.

건국의 기치가 세워진 지 3년간의 준엄한 전진, 빈터우에서 시작한 전후복구건설...

우리 조국은 마침내 전화의 재더미를 털고 일어섰고 나라의 경제는 권위마를 탄 기세로 상승하고있었다. 전쟁을 많이 한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사회주의생활을 마련해주시라 것처럼 애쓰신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평등은 바야흐로 알찬 열매를 무르익히고 있었다.

그러하던 1960년대 초엽 우리 조국앞에는 국제정세가 격화되는 속에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할 과업이 제기되었다.

그무렵에 발생한 가리브레위기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의 군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전회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 회의는 가리브레위기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세상에 알려진것처럼 이 회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전전회의에 제기할 경제국방병진로선이 신속하게 토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 인 실정에 기초하여 내놓으신 경제국방병진의 새로운 로선을 할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결론을 내리기 몹시 어려워하셨다. 다름아닌 인민생활을 생각하시던것이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정적 생활을 지어주시고 나라가 다시금 허리마를 조여야 하는것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그처럼 가슴아리게 여기시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전회의에서 결론을 하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준비를 더 잘하여야 한다고 그처럼 강조하신것이였다. 이미 정명한 고지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고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신것이였다.

이처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써 벌리면서 국방건설을 병진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결단에 의하여 전전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경제국방병진로선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대결정과 함께 온 나라를 격동시킨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지》이라는 전투적구호가 나오게 되었다.

경제건설과 병행하여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는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모순 조건으로 미루어보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의 대응과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도 대박이 일어나고 군력도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민족반대의 강성병영의 중요한 담보를 군력강화에서 찾으시고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어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을 마련하시였으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신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민족의 은인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있었기에 사회주의를 하던 많은 나라들이 편이 붕괴되는 대동란에도 끄떡없이 우리 공화국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인민적 전진길을 걸어오며 주위적인 혁명적력을 갖추는 역사적인 사면도 맞이하게 되었다.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미제와 맞서 싸우며 보유했다는 우리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였다.

조국수호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병진의 승호한 뜻을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우실것을 자신의 역사적사명으로 간주하시고 핵보유의 대업을 이룩하신 우리 장군님은 불세출의 영웅, 회세의 위인이시였다.

가장 어렵던 시기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실것을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영원히 수호하고 후손대대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높이 칭송할것이다.

우리의 핵보유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에게 물려주신 최고의 애국유산이고 세계평화를 위해 쌓으신 최대의 공적이며 역사가 특기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웅적 장군였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온 세상에 파시

한 특대사변이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비상이 강화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높은 수준의 핵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쁨으로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을 동시에 다같이 힘차게 밀고나갔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을 빛나게 장식하는 기적들과 희한한 전변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의 자랑스러운 산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의 평등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돌진해나가는 거대한 기세앞에 미제는 당황망초하고있다. 선군조선의 드높은 승리의 기상은 미제의 대조선전대시정책의 종말을 예고하고있다.

과일을 앞둔 미제는 출로를 새 전경도발에서 찾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를 조작해낸 비렬하고 추악한 행위가 보여주는것처럼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야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있으며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로 위기에 빠뜨리려고 발광하고있다.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오늘날의 현실이 다시금 반증해나가는것처럼 군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이아말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필수의 전략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결성된 이래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발취한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의 신성한 최고리익을 추호도 침해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인권》소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주체조선의 불패의 군력은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였다.

우리 조국을 자위의 성새로 역적같이 다지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최후의 승리와 더불어 영원무궁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지난 세기에도 그러하지만 현세기에도 미제는 우리의 대결에서 패배와 수치를 당 하였다.

력대의 조미대결에서 우리 공화국은 승리의 역사만을 펼쳐왔고 미제는 패배의 역사만을 기록해왔다.

다시말하여 조미대결은 두 력사를 써왔다. 우리에게서는 자랑스럽지만 미국에는 몹시 피로운 두 력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피리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조선전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피리들은 수치스러운 교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단 자주권수호의 성전을 개시하면 미국은 그들대로 얻어맞아야 하고 괴피패당은 물론 일본도 총체로 초토화되고 수장되어야 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선고는 빈말이 아니다.

이제 미제는 커다란 수치를 떠안고 패배의 기록을 역사에 또 남기게 될것이다.

시나은 날들이 보여주는것처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투쟁전통이다.

아마 세상사람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할것이다.

적들이 우리의 신성한 평등과 평화에 한 침범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탄격을 안길것이라고 한 말을 거담아들지 않고 날뛰다가 과연 어떤 불벼락을 맞았는가.

연명도포격전은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을 어떻게 지키며 무리를 진드리는자들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실례로 된다.

지난해 미제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을 려어 남조선지역 상공에 들어밀고 력사상 처음으로 미국본토에 있는 스펜스런 전략폭격을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을 새롭게 남조선지역 상공에 진입시키면서 우리 나라의 최고리익을 침해하는 침략책동을 극히 엄중한 단계에서 진행해왔던 때 조성된 협박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의 최고사령부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포격단 화력타격인무수행과 관련한 긴급작전의 역사도 하나의 실례로 들수 있다.

거기에는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이 긴급작전의 현장까지 언론을 통해 당당히 공개할만큼 자신만만 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오직 북반부 없었기라고 전한 것처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려는 우리 혁명무력의 철석의 의지와 함께 이 세상의 그 어떤 적도 당할수 없는 우리의 힘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 우리가 맞서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죽음만이 차례질것이다.

우리의 적들은 적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무한막강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백두산혁명군인이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언제나 승리에 이끄는 위대한 령장이 계신다.

최후승리가 벌어질것인 우수들은 수적수열은 과업을 당할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경사용우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는 참관자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본사기자 김 광혁 찍음

자주권수호의 길에서

민족의 소망을 풀다

주제 95(2006)년 10월 조선중앙통신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제 95(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탄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것이 확인되었다.

핵실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것으로 국가위력적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이다.

핵실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보도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이 한편의 보도로 하여 전세계가 울려퍼졌다.

우리 공화국의 핵시험성공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일대 패승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화회와 민족적근기는 하늘에 넘쳐있었다.

얼마나 감동적인 핵보유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

영원히 지나간 시대

주제 101(2012)년 4월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은 시대에 우리 인민은 마침내 민족의 소망을 이루게 된것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숙원을 풀고자하고 우리 나라를 자위의 행복임을 틀어쥔 세계적 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선군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굳건히 다지는 길, 자주권수호의 길에서 이룩된 력사적업적은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백배의 힘을 안겨주었다.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열병식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본사기자 박 철

각종 포, 장갑차, 탱크, 로켓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기계화총대들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며 김일성평장기를 누벼나갔다.

일단 명명만 내리면 직진을 단숨에 깔아뭉개며 달려나갈 무쇠철길의 대오들, 적의 아성을 일격에 불바다로 만들며 절벽의 기슭 내려치는 강철포신들과 로켓 트럭, 백두의 칼바람소리인양 세찬 총음을 울리며 날오는 영웅한 비행중대들...

열병식은 침략의 무리들이 내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도발자들

에게 상상할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안길것이라는것을 선언하고있다.

그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슴후련하게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가르치신것처럼 장엄한 무력시위는 명백히 확증해주고있었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할것을 막을 수 있는 영웅한 비행중대들...

열병식은 침략의 무리들이 내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도발자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적지침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당의 혁명적 평등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날에 날다 눈부신 기적과 변혁으로 세상을 놀래우며 강성병영의 찬란한 태양을 앞당겨나가는것이 우리 조국의 긍지로운 현실이다.

최근년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강력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애국충정의 고귀한 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력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의 부강병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대를 튼튼히 다져놓으신 절충한 사상리론가이시되 회색의 정치원리이다. 천리혜안의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학술, 비범한 평등도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전략전술, 파업과 방도를 뚜렷이 명시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만년대로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밝혀주고있는 과학적이고도 백과사전적 지침이며 혁명실현을 통하여 그 거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전투적지침이다.

지난 3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크나큰 로고와 실험을 바쳐가시며 버려놓으신 강성부흥의 귀중한 씨앗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는것을 승호한 도덕리로. 본분으로 여기고 투쟁해온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혁명적 건설을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장군님식대로 진행해나갈 때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 영원무궁한 행복을 마련할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념이 확고히 건져졌다. 사회주의적 민족의 승리적전진과 민족반대의 부강병영을 위한 강력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우리 식, 우리 로고로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로 인도해나가는것을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군력이 강화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을 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하여 우리 식의 혁명방식, 창조방식의 본보기가 마련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용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인도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을 철두철미 자체의 힘과 기술, 자연의 거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진행해나갈때 대하

여 늘 강조하시었다.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더욱 세차게 일어나갈때 대한 사상, 혁명적 건설에서 주체적 민족성을 고수할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고귀한 지침들은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오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최근년간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위대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속에 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파적으로 추진시켜올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킴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지주의 원칙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엄바로 전진해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오늘 우리 당은 이제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자기 땅에 발을 들리지 불이고 세계를 끌어보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는도 혁명적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새겨져 나래치고 대고조의 천둥장마다에서 지령강성의 높이가 펼쳐지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 평등의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박, 대혁명을 이룩해나가는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같듯이

나이나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박, 대혁명으로 세계를 앞선가는데 우리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할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초강도원지지도 강행군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분야가 나아갈 길을 활히 밝혀주시고 불변불굴의 혁신정령으로 혁명적 열매를 맺어주시었다. 우리 조국땅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지식경제시대가 열리었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선군분위의 본보기들이 수많은 창조적대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평등과 배려를 따라나갈수 있다.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대한 사상,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갈때 대한 사상, 대중적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 등 힘있게 벌려나가는 사상, 공격전선 관련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상리론들은 오늘날 대고조전진의 전구마다에서 지장한 창조와 변혁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는 활력소가 되고있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세월을 주름잡으며 대박, 대혁명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있는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호한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있다. 최근년간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체소년년당 야영소와 김성수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소, 위생과학자주재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

소와 평양곡아원, 애육원을 비롯한 세계적 인 건축물들을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시대를 대표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 기적들이 이룩되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이 힘있게 다그쳐지는 속에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국방건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있다. 온 나라에 변이한 창조적의 기상이 나래치고 군민협동전진의 위력이 남김없이 파시되고있다.

천만군민이 한마음을 뜻이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펼쳐나가고있고 최후승리를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게 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혁명의 원수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무시하며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가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해나가는 데 절충한 지침들은 새 전쟁도발책동과 반사회주의사리모략전,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더욱 막렬하게 감쇄해나가고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호한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있다. 최근년간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체소년년당 야영소와 김성수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소, 위생과학자주재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

을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발원한 장군정치적의 위력을 더욱 높이 펼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선군평등의 술사처럼 불패의 백두산혁명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적의 민율적인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대로 위용되며 온갖 원수들의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와 사상관철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군인대 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고 있다.

세상이 열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막쳐와도 우리의 선군의 원칙, 혁명적원칙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평등도와 사상도 승결도 발결음도 함께 하며 당의 선군혁명평등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언제나 전진시키나갈것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도 혁명적 평등도라고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변함없이 이어가며 최후승리를 이룩하려하는것은 우리 당과 천만군민의 불변의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강성국가건설의 강력적지침으로, 승승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불패의 사회주의강성국을 기어 올리세우려고 앞장서고있다.

리 철

선군사상학을 실천과 결부하여

토산권 백화리당원들에게서 선군정치와 농장원들을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에서 선군정치와 관련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가지고 연구발표모임, 문답식 학습경연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적의 본질과 의의, 혁명실현에서 확증된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학습하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선군사상에 대한 해설을 참신하게 들려나오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농산계 5일경에 반에 간 일군은 철학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선군정치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현명하게 인도하시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언어를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감동깊이 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이야기에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평등을 충직하게 받들어 당당한 영웅전투에서 비약과 승리를 일으켜갈 결의에 넘쳐 있다.

로동통신원 리 광복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영원한 생명선, 필승의 보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당사업실적에 구현해나가는 당조직원들과 당원군들앞에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재지와 비범한 영도력으로 사회주의 집권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변혁을 안아온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내고있다.

부장 박동철: 옳은 말이다. 전당김일성주의회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당을 사상적순결제, 조직적정신제, 행동의 통일제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당사업실적에 구현해나가기 위해 우선 당의 유일적당제제를 확고히 세우는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안주시를 비롯한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정제를 다 잘 꾸리고 해설담화, 학습담화, 학습토론, 문답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과

의 학습담화를 적극 활용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학술연구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하여 도안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고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게 하였다.

기자: 당의 유일적당제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말이나 문건으로가 아니라 당의 구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서 리호복: 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통하여 당의 유일적당제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시라고 하였다.

화력탄생산을 채취해올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았을 때 당위원회는 즉시 도급기관과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서 선발한 900여명의 청년들로 돌격대를 꾸어 2.83동청년탄광과 청성청년탄광에 파견하여 당의 호소에 어떻게 대답하시야 하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당사업실적에 구현해나가기 위해 우선 당의 유일적당제제를 확고히 세우는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안주시를 비롯한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정제를 다 잘 꾸리고 해설담화, 학습담화, 학습토론, 문답

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당사업실적에 구현해나가기 위해 우선 당의 유일적당제제를 확고히 세우는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안주시를 비롯한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정제를 다 잘 꾸리고 해설담화, 학습담화, 학습토론, 문답

나눈 이야기

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2. 83동청년탄광에 가면 잘못 살았을 과거와 결별하고 석탄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갈 결의안고 탄광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9경 굴진3소대원들이다. 도당위원회는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나갈 그들의 마음을 충중히 여기고 탄전에 격려를 든든히 내리도록 하였다.

청년강화력발전소에서 나간 도당위원회 조직부 일군들도 전력생산자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오늘의 전력공급은 사회주의호전의 전초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전력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도당위원회가 순천, 덕천, 북창, 개천, 득장지구의 탄광들과 화력발전소들을 비롯하여 중요생산부문에 집중경제선동대를 파견한것은 대중의 심장마디에 우리 당정책을 어떻게 옹위해야 하는가를 더욱 깊이 새겨준 위대한 정치사업이었다.

기자: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당사업실적에 구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부장 김명철: 그렇다. 도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모든 당원군들이 사명감의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음으로써 혁명대오

왜 행정모임에 자주 참가하였는가

진심을 바쳐나가는 당원군들은 많다.

기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정치적중추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실천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비서 안금철: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우리가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강령적지침이다. 도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평성합성가족공장과 순천군 열두삼천농장을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도안의 모든 령도업적단위들이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앞장서나가기도록 함으로써 온 도에 유훈관철의 분위기를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기자: 장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나가는데서 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크다고 본다. 앞으로 도당위원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영원한 생명선,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기로 한다.

본사기자 손영희

선교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일거삼득, 이것은 행정모임에 자주 참가하는 행정모임에 대해 모르는것이 있었고 그에 맞게 정치사업을 따라세우지 못하여 생산실적은 떨어지게 되었다. 더우기 심각한 것은 일부 당초급일군들이 행정사업을 당사업과 동떨어진것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관심을 덜 돌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이때단위 일군들의 이러한 관점은 초급당원들이 나자신의 사업에 빈 공간이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어 초급당원들이 자신 부러가 행정모임에 참가하는것을 중시하게 된것이었다. 참가하여보니 확실히 소득이 컸다. 이러한 실례가 있다.

긴장한 월생계획수행을 위한 문제를 놓고 행정모임이 있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여러 사람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초급당원들은 행정사업에서 제기되는 세부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환히 알수가 있었다. 그 과정에 일부 단위에서 실적이 높지 못한 원인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로력문제였다.

(긴장한 로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생각을 거듭하던 그는 다음날 열린 초급당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내놓았다. 일군들을 적게 돌리려고하는 점이었다. 그러다나니

관리위원회 일군들은 속이 타들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있었던 리명철은 리명철을 동무였다. 그는 다음날부터 리명철 일군들이 모두 나자신의 사업을 도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다음날 리명철 일군들은 이 작업반에 나가 초급당원회의와 당원회의를 열고 모내기 기계가 지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었으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리명철 일군들은 선동원들과 함께 농장원들의 정성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최선정치사업을 펼쳐 나가게 되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은 마친내 뒤떨어졌던 제1작업반을 추켜세우고 모내기를 관리위원회가 계획하였던 날짜까지 끝낼수 있게 하였다.

농사일에 밝은 관리위원장 리명철은 소식대배한 논과 강변밭에 실용시비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먼저 하루에 얼마만 한 면적에 비료를 줄수 있는가를 타산해보고 비료주는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도 리명철은 관리위원회가 계획한 기간에 실용시비를 다 끝내도록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농장원대중의 정성력을

관리위원회 일군들은 속이 타들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있었던 리명철은 리명철을 동무였다. 그는 다음날부터 리명철 일군들이 모두 나자신의 사업을 도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리명철 일군들은 선동원들과 함께 농장원들의 정성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최선정치사업을 펼쳐 나가게 되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은 마친내 뒤떨어졌던 제1작업반을 추켜세우고 모내기를 관리위원회가 계획하였던 날짜까지 끝낼수 있게 하였다.

농사일에 밝은 관리위원장 리명철은 소식대배한 논과 강변밭에 실용시비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먼저 하루에 얼마만 한 면적에 비료를 줄수 있는가를 타산해보고 비료주는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도 리명철은 관리위원회가 계획한 기간에 실용시비를 다 끝내도록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농장원대중의 정성력을

장에 나가 정치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로력지원투를 벌리자는것이였다.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물론 당초급일군들의 역할문제도 강조되었다.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다음날부터 온 공장에 생산물격전의 분위기가 세차게 일었다. 긴장한 단위들에 대한 로력의 집중배치, 힘있는 예술선동과 직관선동, 이등식속보관과 영예계시관을 통한 소개선전... 그것은 그대로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결과 긴장한 월생계획을 월생 넘쳐 수행하게 되었다.

초급당원들이 행정모임에 자주 참가하는 과정은 중급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었다.

행정모임참가로 얻은 소득은 참으로 컸다. 공장의 모든 행정일군들을 단면애 만나보아 좋았고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알게 되어서 좋았으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알아내어 그에 맞는 처방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가기 정치사업의 필요도 그만큼 커져 좋았다.

중요하게는 행정사업이 잘되어 생산이 부족 모른것이었다. 말 그대로 일군들이 행정모임에 자주 참가하는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윤명철

비결은 따뜻한 보금자리에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당사업실적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장진립산사업소 당원군들이 보여준 모범은 참으로 인상 깊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주어야 합니다.》

새로 일떠선 초급당원서 정제천동무는 사업소의 전방실례를 로해한 다음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일군들은 생산이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생산이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의 일을 계기로 작업소별로 산지합속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꾸려주기 위한 분위기가 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같은작업소 2소대 산지합속을 본보기로 꾸리고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뜨끈뜨끈한 온돌방이며 목욕탕, 수차식소형수력발전기로 보강하게 된 댐, 돼지우리 등을 보며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받은 충격 또한 컸다.

그후 초급당위원회는 산지합속보존사업을 만들어 작업소들에 내려보냈다. 여기에 세부조항들을 더 첨부하였다. 비세는 갖지 않아야 한다. 한낮에 자연 조건에 의한 방산방출도는 어느 정도, 화식기계의 질, 부업발의

본사기자 김향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원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업해나가는도록 당적으로 잘 뒤받침해주며 보해야 합니다.》

올해 봄 운산군 파리협동농장 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큰 물피해를 입었던 수시정보의 부침판에서 1만여m²의 흙과 모래를 파내고 2000여m²의 작성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리명철 일군들은 작업반들이 나가 당초급일군들과 선동원

들 불리일으켜 공사기간에 진행할 정치사업방향도 주고 전투장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공사가 시작되자 리명철 일군들은 붉은기들과 구호, 수복반, 포진방수기계를 전투현장에 전개하고 최선정치사업을 충직하게 벌여 관리위원회가 10일동안에 계획하였던 일을 한주일동안에 해제할수 있도록 떠밀어주었다.

향장에서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일군들의 진심을 북돋아주어

운산군 작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올해 농장에서는 리명철 일군들의 지도밑에 농사대책안부터 바로세우고 모든 영농공정을 지난해보다 한주일정도 앞세워 나갔다.

모내기전투에 들어서면서 제1작업반에서 일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계획된 5월 25일까지 모내기를 끝내기로 한 관리위원회의 계획이 수행될수 없었다.

관리위원회 일군들은 속이 타들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있었던 리명철은 리명철을 동무였다. 그는 다음날부터 리명철 일군들이 모두 나자신의 사업을 도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총공사량의 90% 개선 돌파

신장발전소 건립 현장에서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은 설계가들과 함께 현지에서 물의 흐름과 리용하여 저차차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위치를 찾고 여기에 건설력량과 기계화수단을 집중하였다.

시발전소건설 및 영농사업의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발전의 의지로 겹겹이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건설에 동원된 기술자들은 선진공법과 합리화안을 적극 도입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면서 발전소건설속도를 높였다.

시에서는 기술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혼란 지방차재로 대신하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압력관로를 자체로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기업소들과 해산강철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향장에서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장에서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장에서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향장에서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리종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49호 주체103(2014)년 11월 26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나도록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 3중3대혁명붉은기
 - 소제직장 양덕군 언덕원 평안남도인민혁명 종합실업 검사과 구성피복공장 신의주시 연상협동농장 제1작업반 벽성군 원평협동농장 제10작업반 삼천군 방남협동농장 파수작업반 신원군 수원협동농장 청년분조 봉산군 삼천협동농장 제7작업반 만포화학공장 우수군 봉해협동농장 제2작업반 문천시 남창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 문명제진 연세면직장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작업반
- 2중3대혁명붉은기
 - 강동지구관할평원합기업소 화령정 남흥청년화력합기업소 지체상사 철산군 명암협동농장 제6작업반 의주군 수진협동농장 제3작업반 고성대경수산사업소 삼수군 평평협동농장 제7작업반 오성산화강석판산 원석2직장 평양시건설관리국 시공조직 및 건설기계설계연구소 대동강외교단회관
- 3대혁명붉은기
 - 라평구역식료품종합상점 대성구역종합양봉점 평양시공업품수매상점 북창화력발전전합기업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손영희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손영희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손영희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손영희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향에서의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성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안군 장곡리당위원회에서—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과 정서를 훌륭하게 반영한 명화폭들

만수대창작사창립 55돐기념 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세계각지의 미술창작가들로 훌륭히 전변된 만수대창작사창립 55돐기념 미술전시회장을 찾았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대미술창작가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당의 현명한 명도 밑에 주체미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는데 적극 이바지해 온 만수대창작사의 자랑스러운 발전력사를 긍지높이 보여 주었다. 우리와 만난 만수대창작사 국장 리동진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미술전시회에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명작폭들로 만들어 나갈 전체 창작가들과 일군들의 애국충정의 열의 속에 창작된 280여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

우리는 먼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상을 형상한 작품들이 전시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일제 치 수형형상조각상을 돌동계급의 문학예술선에서 수행하여 온 각 지의 파업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미술분야에서도 펼쳐 구현하도록 하시어 우리 미술이 철두철미수령의 미술, 당의 미술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이 뜨겁게 이어지는 만수대창작

사물 수형형상위업실현의 제일앞장에 내세워 주시고 수형형상작품들을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절세위인들의 친근하신 품모가 그대로 안겨 오게 훌륭히 창작할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하여 주셨다. 이렇듯 찬란한 태양의 빛발 아래 수형에 대한 충실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질화한 애국자집단, 당의 수형형상위업실현을 맨 앞장에서 받드는 실력가집단으로 자라난 만수대창작사에 차민치는 총정의 열기가 전시회장에 전시된 수형형상작품들마다에 뜨겁게 어려 있었다.

우리는 조선화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시며》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한평생 농사일을 개척하시어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농장과 산골마을을 돌며 찾으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불분별주의의 현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시령님,

작품은 한반의 피로도 잊으신 채 포전길을 승고한 자옥을 새기시며 물소 눈물도도 가늘게 보시며 다가를 만풍년을 확인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의 세계를 전폭적인 조선화기법으로 섬세하게 형상함으로써 참관자들의 가슴을 새차게 울려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창작한 수형형상미술작품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모든 작품들이 다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형상되었다고 파분한 치하를 주시였습니다.》 수형형상미술작품창작에서 철회적으로 삼아 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창작사업을 이끌어 주신데 이렇듯 모든 영광을 다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고마움의 격정을 감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리동진동무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 있었다.

우리는 이밖에도 조선보석화 《속부의 편지》, 조선화 《장군님과 CNC》, 유화 《세모명의 매일》, 유화 《풍년은 이 온다》, 조선평화 《풍년은 이 온다》, 조선평화 《오가산의 아침》, 아크릴화 《출근길》, 도자공예 《마시평실경관》, 수예 《오가산의 마가목》, 조각 《한란》 등도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주체미술의 면모를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조선화 《결승선으로》, 《국제야영의 나날에》, 《보통의 겨울》과 유화 《사파라는 처녀들》 그리고 아크릴화 《해미는 애육원》과 조선보석화 《사랑의 물놀이장에서》 등 수십편의 미술작품들도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과 영보이는 생활의 계기정서를 정확히 포착하고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이런 미술전시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주체미술의 위력, 자랑한 련사와 장찬한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미술작품들이 수많은 전시되어 전시회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 물소 지도해 주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전열사묘형상인, 집, 메달, 마크도안들이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땅에 솟아나는 기념비적전승물들마다에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건설의 열정을 새겨 넣은 나가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이지와 비범한 명도가 어렸음을

형상한 조선화 《세모명의 개척자들》과 유화 《세모동판에 넘치는 힘》, 그 어떤 대자연도 당의 두리에 굳게 묻혀 결사판별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전진적 막을수 없다는 사상을 격동적인 화폭으로 폭넓게 펼쳐 보여 주었다. 《한평생의 기적》, 조선화 《사랑의 집안에서》도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작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작자의 광만에 넘친 모습을 밝은 색채와 섬세한 조선평화기법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또한 조선화 《결승선으로》, 《국제야영의 나날에》, 《보통의 겨울》과 유화 《사파라는 처녀들》 그리고 아크릴화 《해미는 애육원》과 조선보석화 《사랑의 물놀이장에서》 등 수십편의 미술작품들도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과 영보이는 생활의 계기정서를 정확히 포착하고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이런 미술전시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주체미술의 위력, 자랑한 련사와 장찬한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미술작품들이 수많은 전시되어 전시회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 물소 지도해 주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전열사묘형상인, 집, 메달, 마크도안들이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땅에 솟아나는 기념비적전승물들마다에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건설의 열정을 새겨 넣은 나가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이지와 비범한 명도가 어렸음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하는 도안들이었다.

조선화 《형평의 메아리》, 유화 《군인착암수》, 조선보석화 《청천강반에 동이 뜬다》, 판화 《군인착암수》를 비롯한 작품들에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시대의 주인공들의 인간미를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화법이 세련되고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조선화 《소나무와 참매》, 유화 《풍년은 이 온다》, 조선평화 《오가산의 아침》, 아크릴화 《출근길》, 도자공예 《마시평실경관》, 수예 《오가산의 마가목》, 조각 《한란》 등도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주체미술의 면모를 잘 보여 주었다.

참으로 이번 전시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가는 주체미술의 발전면모와 더불어 길지의 미술창작기지-만수대창작사의 자랑찬 련사를 뚜렷이 보여준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발자취가 어렸이는 만수대창작사를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수형형상조각상과 주체미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삼아갈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으며 이번 전시회를 진실미술박물관에서 성대히 진행할데 대한 크나큰 뜻을 배풀어 주셨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손길아래 자라난 만수대창작사의 창조집단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충직하게 감행해나가는데서 시대앞에 지닌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김성민

모교와 졸업반학생들의 나무심기

평원군 영웅평원고급중학교에서

평원군 영웅평원고급중학교로는 군사부부부 하는 졸업생들의 부대에서 보내는 감사편지들이 자주 온다.

학교일군인 송금성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그 편지들을 받아볼 때마다 류다른 회억에 휩싸여 교정안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정경에 바라보곤 한다. 그 나무 한그루한그루에서 제자들의 림름한 모습을 알아보는 기쁨을 어디에 비길것인가.

그도그렇것이 이 학교에는 졸업생들이 모교를 떠나기에 앞서 교정에 나무를 심곤 하는 훌륭한 기풍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래전부터 이 학교 학생들속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주변야산들과 교정에 나무를 심는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왔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이 마음을 크게 떨

릿년전이었다. 그때에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주변야산으로 줄을 지어 올라갔다. 나무모와 곡괭이, 삽, 새끼뿔구리 등을 들고...

저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온 산관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하지만 일군들의 마음은 맑지 못했다. 졸업반학생들이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만 하였지 그 한그루한그루마다에 자기의 지성을 다 쏟아부으려는 열의가 잘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무엇때문인가. 자신들이 예서 나무를 심는가를 미처 다 알지 못했기때문이었다. 그저 선배들이 얼마를 심었으니 우리도 얼마를 심으면 된다는 산수적인 계산과 단순한 경쟁심만이 작용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마음이 열렸다.

《동무들도 다 보았겠지만 전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의 잘못입니다. 그저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형화 되었고 그 하나하나의 공경들이 학생들의 애

국심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일군의 마음은 교원들 모두가 자책감을 느낄 못하였다.

하여 다음날 학교에서는 나무심기가 다시 진행되었다. 졸업반학생들모두가 성의를 다해 나무를 심었는데는 물론이었다. 이때부터 학교에서 수년전처럼 내려오던 졸업반학생들의 나무심기가 학생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마음을 먼저 심어주는 훌륭한 계기로 더욱 뜨겁게 이어졌다.

그렇게 심어진 나무들은 해마다 더욱 키를 추고치고 제자들을 다 돌라보게 성장하였다. 모범군인, 로력혁신자, 실력있는 과학자, 기술자 등이 계속 늘어났다.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원해도 13명이나 된다니 더 말할 수 있잖나.

졸업반학생들의 나무심기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그와 더불어 애국은 더더욱 수렴화, 원일화되고 고함평은 나날이 아름답게 변모될것이며 제자들의 위훈의 새소식도 끊임없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졸업반에서 한 학생이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진영 동무가 취재했다.

평양시안의 이름있는 식당들사이

얼마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옥류관에서 평양시안의 이름있는 식당들사이 국수경연이 진행되었다. 경연에는 옥류관과 청류관, 군인식당 등을 비롯하여 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시안의 10여개 단위가 참가하였다.

세상에 소문난 우리 민족음식인 국수의 맛을 겨루는 경연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매우 높았다.

《국수야 옥류관국수야 삼강이...》 《승부는 겨루어 봐야 압니다. 요즘 시안에 국수를 잘하는 식당들이 얼마나 많지요.》 ...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경연에서는 옥류관이 1등을, 청류관이 2등을, 평양교과호텔이 3등을 쟁취하였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치와 떡, 국수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그것을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수는 오랜 련사를 가진 우리 인민의 독특한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만들어먹어 온 민족음식 국수는 오늘도 누구나 좋아하고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

져있다. 경연장은 첫시작부터 경쟁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더욱이 주목되는것은 경연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된것이 아니라 경시 자기 단위에 봉사하는 방법대로 국수를 만들어 내놓는것이였다. 따라서 어느 단위가 어느 국수의 고유한 맛을 잘 살리는가에 승부가 달려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국수에서는 옥수가 기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국수의 질이 옥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쫄깃하면서도 윤기나는 국수사리와 구수하면서도 감미로운 옥수, 꾸미의 3대요소 모두가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 단위의 경연에 참가한 여러 단위의 조리사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국수에서 기본은 옥수이다. 옥수를 맛있게 만드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고기를 삶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보통 옥수감으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가 쓰이는데 소고기는 좀 질긴가 하면 닭고기와 꿩고기는 매우 연하다. 이런 특성에 맞게 삶는 시간을 바로 정하는것이 옥수를 맛있게 만드는 기본공리라 된다. 고기는 찬물에 서서히 끓여야 한다. 그 래야 고기의 맛을 잘 살릴수 있다.

국수사리와 꾸미도 국수의 맛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구수하면서도 쫄깃한 국수발을 만들자면 우선 면죽을 잘해야 한다. 그러자면 실례를 들어 메밀가루와 농마

가루를 쓸 때 그의 배합비율을 바로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은 7:3, 6:4이다. 익 단축한 다음에는 인차 국수를 늘려야 한다. 국수를 삶아내는 시간은 1분 30초~1분 40초정도이다. 그 다음은 재빨리 찬물에 씻어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국수를 손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는것이다.

꾸미로 쓰이는 고기는 지내 삶지 말아야 하며 양념은 향기롭고 감칠맛이 있어 만들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먹을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자세히 해설해 주면서 우리 당의 은총속에 마련된 오늘의 국수경연장에서 자기들도 많은것을 배우고있다는 조리사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스록 우리의 민족음식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해 마음쓰시며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찾으시어 물소 국수까지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더욱 뜨겁게 어려웠다. 경연장에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익혀온 국수가공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해가는 조리사들의 열광마당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갈 의지가 비껴있었다.

옥류관에서 진행된 뜻깊은 경연에 참가했던 여러 단위의 조리사들이 내놓는 결의는 한결같았다. 구수 식당 국수가 제일 유명하여 인민들이 즐겨찾아오게 하겠다고.

조향미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체육방침입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온 나라에 대중체육열풍이 대세 새차게 일어라고있었다. 얼마전 평양시안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탁구경기를 통하여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었다.

100여개 단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남,녀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대 단체 당, 행정직업일군들의 관심과 참가열의가 부쩍 높아지고 선수들의 탁구기술수준이 지난 시기와도 훨씬 발전한것으로 하여 관전자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모든 단체들이 4개 조로 나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 있는 유명한 풍산개도 원종을 보존하고 많이 번식시켜 널리 국수로도 많이 활용되도록 하라.》

조선의 국화인 목란꽃과 국조인 참깨와 함께 국조인 풍산개도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풍산개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진 우리 나라의 토종개이다. 량강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일대가 원산지이며 풍산개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풍산개의 원산지가 외진 산골이었으므로 이것은 비교적 순수한 혈통을 이어올수 있게 한 기본조건으로 되었다. 풍산개는 워다리가 굵고 탄탄하여 산악지대에서도 잘 달리며 눈동자는 검거나 재빛을 띤다. 귀는 비교적 작고 선 귀로서 앞방울로 향해있으며 목은 굵고 짧으며 잘 발달되어 있다. 배는 앞쪽에 약간 처진감이 있으나 수컷은 바삭 올라볼 수 있어 민활하게 움직이는데

—원래 네뿔만 여러 개의 토지는 매우 녹녹한데 나무신은 습기를 마시고 오래 신을수 있어 예로부터 이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만들어 신었다.

올랜 련사를 가지고있는 네뿔만드의 나무신은 백양나무로 만든다. 재료가 풍부해다가 거름 역시 어렵지 않기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손으로 나무신을 만들어신는다. 옛날에 이곳 농민들은 배모양의 나무신을 만들어신는데 안에 밀짚같은것을 넣어넣으면 추위를 막을수 있고 편안하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농민들과

세산 체육열풍속에 넘치는 청춘의 기백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탁구경기에서

위에서 진행된 경기에서는 체신성, 인민봉사총국, 대성지도국,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속 많은 단체의 선수들이 체육열풍 못지 않은 훌륭한 경기의식과 탁구기술을 보여 주었다. 이번 탁구경기는 대 단체들이 당, 행정직업일군단시경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5차례 단식, 복식, 혼성복식경기를 진행하여 3차례의 경기에서 이진 단체가 다음단계에 올라가는 승자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느 경기나 그러했지만 특히 자기 조의 결승전에서 이진 단체는 인민봉사총국과 무역은행사이의 마지막 5번째 내지단식경기가 매우 치열하였다. 이 경기결과에 따라 우승단체가 결정되게 되는것으로 하여 분위기는 최대

번외하게 생겼다. 피리는 영명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있다. 생김새가 담차고 기질도 우리 민족을 그대로 품어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풍산개를 사랑하고있다. 예로부터 이름이 높았던 우리 나라의 특산물중인 풍산개는 우리 민족의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주는 당의 뜨거운 손길아래 천년기념물로 등록되었으며 조선의 국조로서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증식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산개는 우리 민족의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주는 당의 뜨거운 손길아래 천년기념물로 등록되었으며 조선의 국조로서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증식되고있다.

산개는 우리 민족의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주는 당의 뜨거운 손길아래 천년기념물로 등록되었으며 조선의 국조로서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증식되고있다.

산개는 우리 민족의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주는 당의 뜨거운 손길아래 천년기념물로 등록되었으며 조선의 국조로서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보호증식되고있다.

의 전술체계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다양하고도 세련된 기술동작들을 보여주어 관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높은 기술로 맞대드는 선수들을 물리친 대성지도국 책임일군의 경기도 훌륭하였다. 한편 체육관을 들었다 놓는 열광적인 응원으로 자기 단체 선수들을 적극 고무해준 조선로동당출판사, 무역은행 등 많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열기면 모습은 경기분위기를 비약히 앙양시켰다.

우리와 만난 체신성 책임부원 로금실동무는 자기는 지난 시기 탁구를 할줄 몰랐지만 당정책을 받들고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여내는 선수로까지 되었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볼 결심을

다위대한 수형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생방역사업에서는 청소와 소독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연한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은 산성을 띤 전해수를 산은 전해수라고 한다. 산성전해수는 순간살균작용이 강하면서 항균력이 강하다. 그리고 원자가 적게 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뿐만아니라 치료효과가 좋으므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산성전해수에서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기본활성물질은 차아염소산이다. 산성전해수는 pH가 2~3인 강산성전해수와 pH가 5~6, 5인 약산성전해수로 나뉜다. 강산성전해수는 포도알균, 대장균 등에 접촉하는 순간 그리고 아포균과 조류독감바이러스 등은 10분내에 죽이는 강한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약산성전해수는 강산성전해수와 같은 살균작용을 나타내면서도 강산성전해수에 비해 부식성이 좋고 금속재료의 부식을 적게 일으키는것으로 하여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광범히 쓰이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나라 라에서는 산성전해수에 의한 위생방역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염병을 미리막았다고 한다. 산성전해수는 0.05~0.2%의 소금물을 직류로 전기분해하여 만든다.

지난 시기에 양극과 음극을 가르는 격막이 있는 전해조에 의한 강산성전해수의 제조방법이 주로 리용되었던 지금은

지혁철

격막이 없는 전해조에 의한 소독수제조방법이 많이 리용되고 있다.

산성전해수의 리용전망은 크다. 보건부에서는 기관안의 복도소독과 손소독, 침대소독 등

치 등을 비롯하여 폭서시 소독할수 없는 각종 의료기구와 재료 등의 소독에 널리 쓰이고있다. 화상과 골수염, 비뇨기과과질병, 구강과 질병, 산부인과질병을 비롯한 화농성감염창상을 세척하여 치료하는데서 아주 효과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수소독과 식료공장, 금양부소독, 축산부문과 양식부문에서는 물론이고 비축처리와 남새의 비배관 등 농업부문에서도 산성전해수를 받아들여 큰 실리를 얻고있다.

지난 10여년동안 함경남도인민위원회에서 산성전해수를 만들어내는 경험에 의하면 1㎡의 산성전해수제조에 소금이 0.5~2kg 정도 소비되었다. 원가를 절제 들인데 비해 산성전해수가 강한 살균작용과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있는것으로 하여 병원에서는 화농성감염창상치료와 위생관리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병원의 의료인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유행성동맹원을 비롯한 전국의 치료에방기 관들과 타사소, 유치원들 그리고 금양부소독에 도입한 산성전해수 제조장치는 지금 해당 단위 종업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박사 리승걸



물고기잡이전투에 펼쳐나선 어로공들에게 날씨예보를 신속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기상수문국에서— 본사기자 취음

이느식당의국수맛이제일로좋은가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공 동 호 소 문

2014년 12월 17일은 조선로동당의 영연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이 되는 날이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결출한 명도덕, 불굴의 의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사회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자주시대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발전공부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을 하나의 사상과 신념으로 굳게 묶어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발전할수 있는 든든한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본보기를 창조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영명하신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관한 유럽지역 정당, 단체들의 연합토론회 참가자일동
2014년 11월 22일
로 마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인 명도덕에 조선인민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가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다시한번 전적인 지지와 편대성을 보내면서 12월 17일에 즈음하여 세계사회의위업, 인류사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할것을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들과 단체들에 열렬히 호소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 연구 원단전국위원회 주최로 도서 《자주》발행식이 13일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주체사상연구 원단전국위원회,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핀란드조선혁명의 인사들과 군중이 발행식에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원단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기씨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을 맞아 그의 사상리론 업적과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것이다.

도서 《자주》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제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게재되었으며 《주체사상을 발전공부화시키신 김정일동지의 업적》, 《선군사상을 정확히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등 여러 제목의 글들이 실렸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 파국적운명을 강요하는 상전의 책동

얼마전 미국은 조선반도유사시 일본과의 사전협의없이 주일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립장을 공식발표하였다.

미국이 유엔부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특대형《인권》모략국을 벌려놓은것과 동시에 이러한 립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진작이 무엇인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북침이며 제2의 조선전쟁이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전쟁이라는 반공화국(인권)모략국의 중장을 펼쳐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침략야망을 빼앗지 드러내며 힘의 대결을 공명연히 선언하고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단호한 립장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미국의 전쟁도발에는 침략의 본지지에 대한 전면적토대로 대담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이 주일미군은, 팜도, 하와이, 본토 주둔무력은 끌어올수 있는 미군을 다 끌어와도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않을것이다. 어중이떠중이 추종국가무력들을 몽땅 구합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주도의 다국적무력과 대결하여 승리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남조선피괴공과 일본, 15개 추종국가무력을 참가시켰다가 우리에게 쓰지 않은 참패를 당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상자가 많이 남수 있는 규모가 큰 전쟁

에 추종국가무력을 들게대로 내세우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지난 세기 후반기의 월남전쟁과 발칸전쟁, 21세기의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미국은 다국적무력을 투입하여 치명리는 국권 및 인권을 유린행위들을 저질렀다.

제2의 조선전쟁에 미국이 단독으로 참가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이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 하고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악을 쓰고있는것은 결코 심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예견하고 각오하고있으며 단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다. 우리의 혁혁적력은 비상히 강화될것이며 머지않아 현실로 증명될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대결이 《유일초대국》의 자리는 고사하고 자기의 존재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무모한 자멸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일본당국자들도 허풍에서 술술 나오는 조선반도유사시 실지로 펼쳐지던 일본이란 땅덩어리가 어떤 재난속에 빠져들것인가를 자각해야 한다.

이번에 일본정부를 무시하고 주일미군의 자동적개입을 선언한 미국의 태도는 미일관계와 주일미군의 역할론제를 똑똑히 부각시켰다.

일본당국자들은 지난 7월 미국이 주일미군출동문제를 일본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미국의 이번 립장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자기 발뒤꿈치

의 썩살보다 못하게 여기고있다는것이 확증되었다.

미일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하수인의 판계이다.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이라고 추어올리지만 그것은 명색뿐이고 속심은 일본본토를 조선침략, 아시아침략의 전방기지, 핵전초기지로 리용하고 《자위대》무력을 침략의 총출발로 써먹는게 다이다. 주일미군이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막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이바지》하고있다고 떠들어대는 미국의 선전은 새빨간거짓말이다. 오히려 주일미군으로 하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은 위협에 빠져들고있다. 만일 주일미군이 조선전쟁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곧 일본에 엄청난 재앙을 몰아오는것으로 필것이며 일본인민들은 원치도 않는 전쟁에 말려들것이다.

주일미군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함께 조선침략의 선전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미군을 항시적인 타격목표로 겨냥하고있다. 일단 주일미군이 움직인 한다면 우리 혁명무력이 내놓는 열적의 불꽃이 주일미군사기지들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할것이다.

주일미군의 운명이자 일본의 운명이다. 일본은 때로 《자주》를 부르짖고있다. 그런데 그로써 소원하는 그 《자주》가 지금 어디에서 낮잠을 자고있는가.

일본은 조선반도정세가 긴장해질수록 일본의 운명도 칼끝에 올라선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대없이 노는 대가로 차체질것은 파국적운명뿐이다.

리 경 수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구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20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조선《인권결의》를 정 의에 대한 우호적으로 락인 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조작된 이 《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미제는 유엔을 조선에 대한 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의리는 것은 완전한 거짓사료들에 기초하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에는 조선인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에서 《인권문제》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무력간섭, 무법침공행동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무제한하게 강화해나가는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세계 진보적인인류는 단결하여 유엔을 반대하는 미국의 《인권》소동을 거부 서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하자! 선군승리 만세!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구조, 영국조선친선협회가 20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조선《인권결의》를 정 의에 대한 우호적으로 락인 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조작된 이 《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미제는 유엔을 조선에 대한 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의리는 것은 완전한 거짓사료들에 기초하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에는 조선인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에서 《인권문제》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무력간섭, 무법침공행동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무제한하게 강화해나가는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세계 진보적인인류는 단결하여 유엔을 반대하는 미국의 《인권》소동을 거부 서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하자! 선군승리 만세!

《미국인권보장실례보고서》(2)

로 씨 야 외 무성의 웹 사이트에 실린 글

아 동의 권 리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있으며 일부 경우 이것은 사망을 초래하고있다. 19개 주들에서 법이 유체적 처벌비용을 승인하고있다. 미국에는 전기충격과 먹이지 않거나, 암모니아수를 강제로 들이게 하는 방법들이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교육행위들이 있다. 로 씨야에서 데리고온 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인권의 침해하게 제기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3개 국가들중의 하나이다.)

미국보건후생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이 나라에서 69만 5 000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으며 그중 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어린이의 약 80%는 4살도 안된 어린이들이다. 총체적으로 약 590만명의 미성년들에게 폭행이 가해졌을수 있다는 약 330만건의 신고가 미국의 후회기관들에 제기되었다.

가장 흔있는 주들과 지역들은 콜롬비아아주, 뉴욕, 마사쉴루츠, 캔터키, 아이오와, 아칸소, 알라스카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26.8%가 성행위 등 폭행과 관련되어있다.

주로 남부주들 비롯한 19개 주의 학교에서는 법에 따라 아직까지 유체적처벌이 승인되고있다. 미교육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6년에 22 만 3 000명의 학생들에게 유체적고통이 가해졌다.

캔톤시의 로벤버그교육행위(켄싱턴아주)주체사상은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간 양아들을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

미국인권보장실례보고서 (2)

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었다.)로 기소된 크레이머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양팔로 삼았던 로씨야이성년 크레이머 안도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열. 그리스로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회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회들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획에 매여

2011년에 이 학교의 참살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폭행(격격치)을 받은 장면을 찍은 휴대필름을 없앴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유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위반하고 테러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편하게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 가혹한 심문을 들이내곤 하였다.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로씨야, 아프가니스탄, 판타노에 있는 미군강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포함 2 500여명이다.

로씨야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침해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간 한살난박에 인턴인양이 까르킨에게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티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1년 11월 18일 요키시(켄싱턴아주)주체사상은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간 양아들을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

미국인권보장실례보고서 (2)

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었다.)로 기소된 크레이머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양팔로 삼았던 로씨야이성년 크레이머 안도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열. 그리스로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회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회들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획에 매여

2011년에 이 학교의 참살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폭행(격격치)을 받은 장면을 찍은 휴대필름을 없앴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유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위반하고 테러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편하게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 가혹한 심문을 들이내곤 하였다.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로씨야, 아프가니스탄, 판타노에 있는 미군강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포함 2 500여명이다.

로씨야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침해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간 한살난박에 인턴인양이 까르킨에게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티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1년 11월 18일 요키시(켄싱턴아주)주체사상은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간 양아들을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

미국인권보장실례보고서 (2)

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었다.)로 기소된 크레이머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양팔로 삼았던 로씨야이성년 크레이머 안도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열. 그리스로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회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회들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획에 매여

2011년에 이 학교의 참살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폭행(격격치)을 받은 장면을 찍은 휴대필름을 없앴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유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위반하고 테러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편하게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 가혹한 심문을 들이내곤 하였다.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로씨야, 아프가니스탄, 판타노에 있는 미군강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포함 2 500여명이다.

로씨야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침해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간 한살난박에 인턴인양이 까르킨에게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티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1년 11월 18일 요키시(켄싱턴아주)주체사상은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간 양아들을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

베닌정당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베닌사회주의당이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통과는 조선인민이 선내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 베닌사회주의당이 가장 동경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대조선적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서 조선의 근대와 인민의 참을수 없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진보적인인류의 처사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번에 《결의》를 조작해 낸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의 위태는 조선식사회주의제도를 힘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미국의 대조선전대

베닌정당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베닌사회주의당이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통과는 조선인민이 선내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 베닌사회주의당이 가장 동경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대조선적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서 조선의 근대와 인민의 참을수 없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진보적인인류의 처사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번에 《결의》를 조작해 낸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의 위태는 조선식사회주의제도를 힘으로 뒤집어엎으려는 미국의 대조선전대

미국인권보장실례보고서 (2)

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었다.)로 기소된 크레이머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양팔로 삼았던 로씨야이성년 크레이머 안도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열. 그리스로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회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회들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획에 매여

2011년에 이 학교의 참살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폭행(격격치)을 받은 장면을 찍은 휴대필름을 없앴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유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위반하고 테러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편하게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 가혹한 심문을 들이내곤 하였다.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로씨야, 아프가니스탄, 판타노에 있는 미군강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포함 2 500여명이다.

로씨야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침해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간 한살난박에 인턴인양이 까르킨에게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티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1년 11월 18일 요키시(켄싱턴아주)주체사상은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간 양아들을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

미국인권보장실례보고서 (2)

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었다.)로 기소된 크레이머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양팔로 삼았던 로씨야이성년 크레이머 안도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열. 그리스로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회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회들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획에 매여

2011년에 이 학교의 참살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폭행(격격치)을 받은 장면을 찍은 휴대필름을 없앴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유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위반하고 테러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편하게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 가혹한 심문을 들이내곤 하였다.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로씨야, 아프가니스탄, 판타노에 있는 미군강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포함 2 500여명이다.

로씨야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침해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간 한살난박에 인턴인양이 까르킨에게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티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1년 11월 18일 요키시(켄싱턴아주)주체사상은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간 양아들을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

미국인권보장실례보고서 (2)

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었다.)로 기소된 크레이머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양팔로 삼았던 로씨야이성년 크레이머 안도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열. 그리스로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회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회들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획에 매여

2011년에 이 학교의 참살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폭행(격격치)을 받은 장면을 찍은 휴대필름을 없앴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유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위반하고 테러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편하게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 가혹한 심문을 들이내곤 하였다.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로씨야, 아프가니스탄, 판타노에 있는 미군강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포함 2 500여명이다.

로씨야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침해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간 한살난박에 인턴인양이 까르킨에게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티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1년 11월 18일 요키시(켄싱턴아주)주체사상은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간 양아들을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

월간 국제정세개관 악의 화신 미국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달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했다. 미국은 300억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핵무기관리체계를 전면개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것이다. 미군부우두머리들 저들의 핵무기현대화가 북조선의 핵을 억제하는데서 《큰 도움》이 된다 고 떠벌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핵무기를 세계적메아리 실현의 기본수단으로 계속 틀어쥐고나갈 흥심을 품고있으면서도 미국이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꺾으려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 이 핵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려 한다는것을 드러냈을뿐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고 남조선에 국동화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매일, 매 시각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위협》을 국제화함으로써 대조선압살기도를 실현해보려고 무언을 쓰고있다.

미국이 이달에 남조선에 136기의 《에트리오트-3》요격미사일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그것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전에도 부합된다.》라

고 열심히 광고한것은 우연치 않았다.

그것은 남조선피괴공을 총출반으로 내몰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구름을 몰아오려는 핵전쟁의 발파적정체를 더욱 드러내주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장권과 온갖 전황을 일삼는 미국은 이달에 우리 공화국을 주요과녁으로 삼고 어서서는 장난을 하였다. 미제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핵공갈과 함께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까지 곁들고있다.

유엔에서는 미국의 주장하에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강요되고있다.

미국의 하수인들로서 나선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반도자들의 《중언》에 따라 제출한 《결의안》은 우리 나라를 《인권유린지대》인것처럼 꾸며 놓았다.

이것은 인간사랑, 인민중시의 시책이 실시되고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인 우리 공화국을 모두, 우용한 최대의 정치적도발이었다.

인권문제에 말하면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인 다름아닌 미국에 있다.

미국에서 백인경찰이 흑인청년을 살해한것을 계기로 시작된 당국의 인종주의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25일연례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170여개 도시로 번져갔다. 극도의 인종차별과 인간중요사상이 골수에 박 찬 백인경찰의 야수적만행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죄 아닌 《죄》로 미국사회에서 《2부류》공민회급을 당하며 수많은 딸시와 학대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격렬한 시위참가자들은 《인종차별주의적 인 경찰만은 필요없다.》 《미국에는 정의가 없고 평화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관들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촉구해나갔다.

중무장한 경찰들은 시위군중을 향해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아대며 폭압을 날댈때 끝에서 위자들을 집단적으로 체포해감으로써 사회적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 도처에서 격렬한 항의시위가 연일 벌어지고있는

《인권재판관》이라고 한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례》에 대해 검사를 매기며 세계를 혼신하다가 이번이 제 집안에서 터진 일로 망신을 당하고 웃송거리가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인권의원인 현용인 미국의 주도하에 채택된 반공화국《인권결의》라는것이 서문짜리도 못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인권문제》를 결코 복원을 단행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적책동이려는 점에서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

강자에게는 범죄도 선행으로 되고 약자에게는 선행도 악행으로 되는 엄혹한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그에 전면대응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맞선 우리의 반미대결전의 도수는 백배로 강화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총결산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정의가 승리하고 부정의가 패하는것은 역사발전의 어쩔수 없는 법칙이다. 이것이 이달의 국제정세의 총화이다.

변사기자 리 현 도

이런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에 드 알리 카메니가 25일 난 국 제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란을 배세력들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앞서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는 24일 난 텔레비전방송파의 회에서 평화적혁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는 이란은 지금까지 나라의 핵권리를 수호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핵기술을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와 압력으로는 이란핵문제를 해결할수 없고 이란에서 그는 이란정부는 원상분리자들의 가등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